

고용동향 브리프

February 2018 **02**

01 주요 고용이슈 심층 분석
여성과 저임금

02 이달의 통계포커스
여성 초단시간 근로자 현황



주요 고용이슈 심층 분석

여성과 저임금

이정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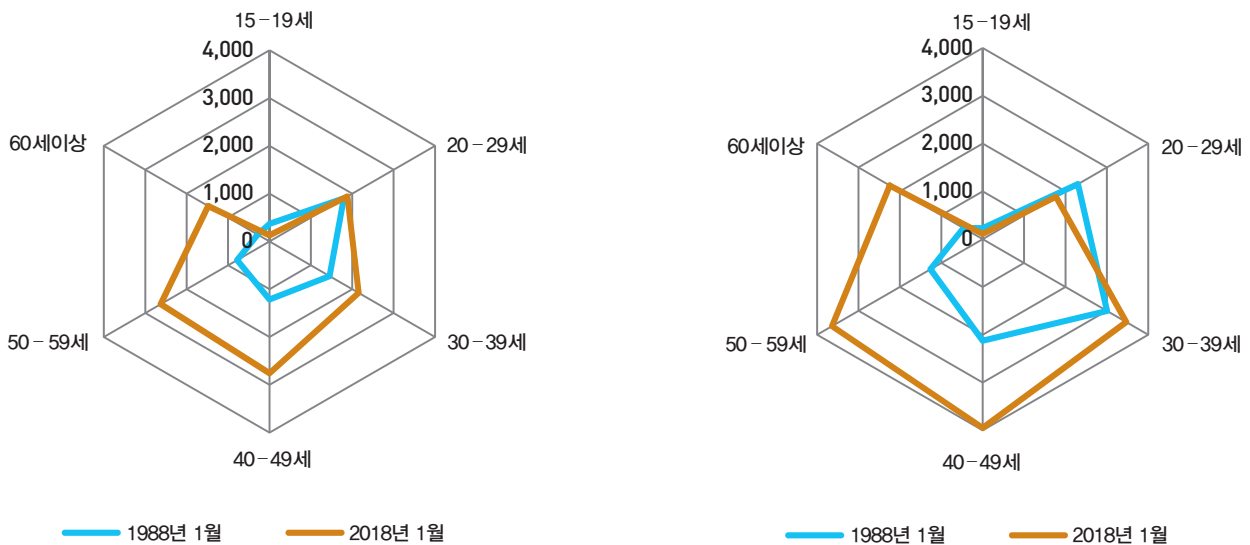
I. 여성의 노동시장 참가 추이

- 「남녀고용평등법」시행 30주년이 되는 2018년까지 여성의 노동시장 참가는 지속적으로 확대
 - 2018년은 고용에 있어 여성과 남성의 평등한 기회와 대우를 규정한 「남녀고용평등법」이 시행된 1988년 4월 1일로부터 30년째가 되는 해
 - 남성 취업자가 30년 전인 1988년 1,009만 9천 명에서 2017년 1,536만 8천 명으로 52.2% 늘어나는 동안, 여성 취업자는 677만 1천 명에서 1,135만 6천 명으로 67.7% 증대
 - ▶ 연중 취업자 수가 가장 적은 달인 2018년 1월에 남성 취업자 수는 1,517만 9천 명, 여성 취업자 수는 1,103만 4천 명
 - 여성 취업자 규모는 1998년, 2003년, 2009년 등 위기 또는 불황기를 제외하고 꾸준히 증가
 - 지난 30년간 한국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율은 45.0%에서 52.0%를 초과하는 수준으로 상승(OECD, stat 참조)
 - ▶ 전체 취업자 중 여성의 비중은 1988년 40.1%에서 2017년 42.5%로 증가

* 한국고용정보원 e현장행정지원팀 부연구위원 (faith0502@keis.or.kr)

[그림 1] 여성(좌)과 남성(우) 연령대별 취업자 규모

(단위 : 천 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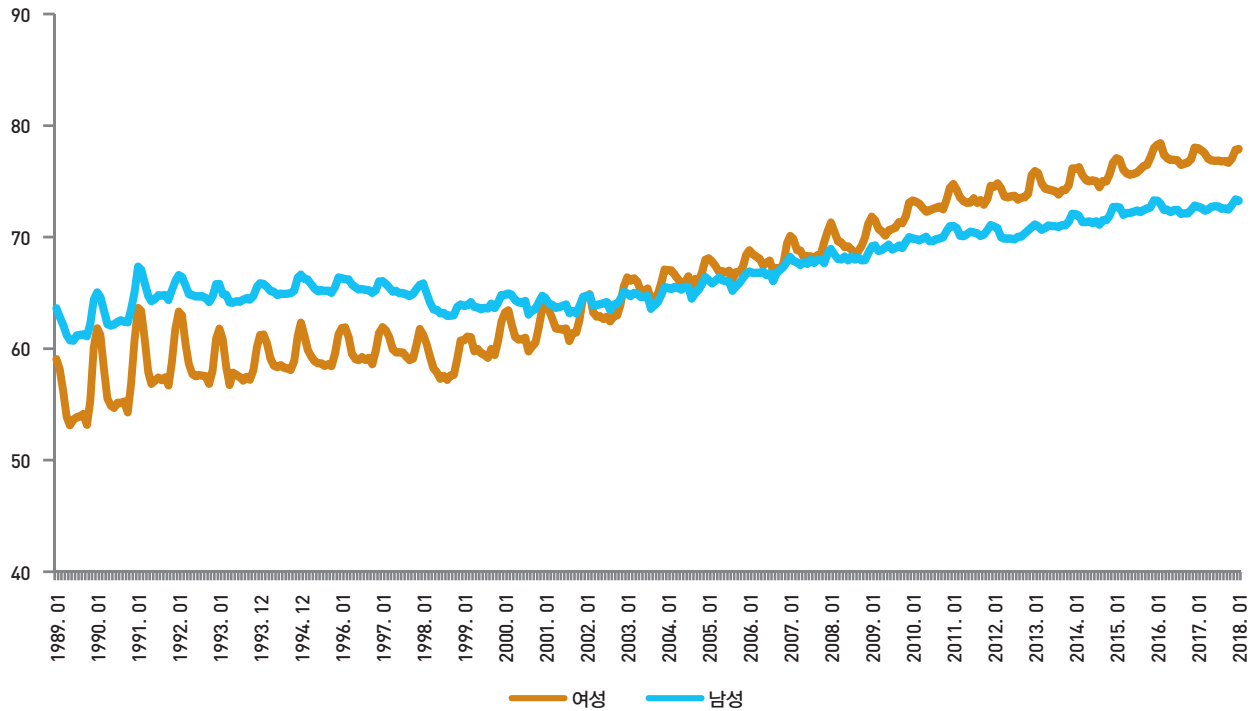


자료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각연월(kosis.kr)

- 취업자 증대는 청년층보다는 중고령층을 중심으로 진행되었으므로 전체 취업자 중 중고령자 비중 증대
 - 남성은 10대와 20대의 취업자 규모는 감소하고 30대 이상 취업자는 증대하였으며, 여성은 10대 취업자 규모만 감소하고 20대 이상 취업자는 증가
 - ▶ 1988년 1월 대비 2018년 1월의 남성 취업자 증가율은 10대 -53.3%, 20대 -23.0%, 30대 15.5%, 40대 85.6%, 50대 188.0%, 60세 이상 384.7%
 - ▶ 연령대별 여성 취업자 증가율은 10대 -65.2%, 20대 4.8%, 30대 48.3%, 40대 126.9%, 50대 236.4%, 60세 이상 420.0%
 - 취업자 중 50대 이상이 차지하는 비중은 1988년 1월에 남성 중 18.4%, 여성 중 18.1%에서 2018년 1월에 각각 38.8%와 37.2%로 두 배 이상 상승

[그림 2] 취업자 중 임금근로자 비중

(단위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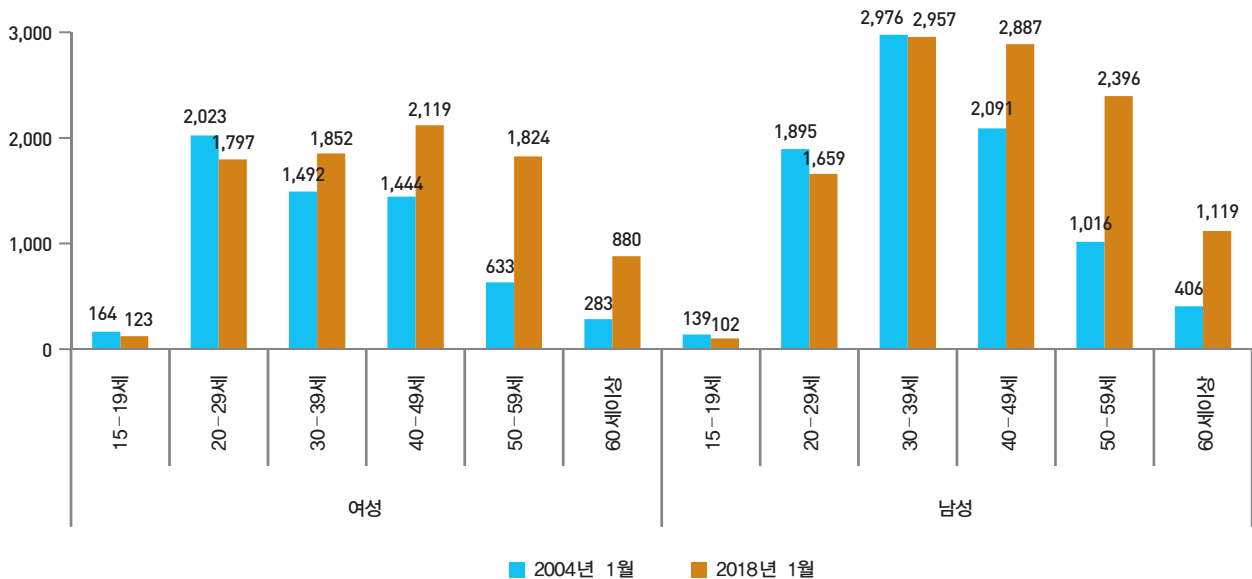


자료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각연월(kosis.kr)

- 2000년대 들어 취업자 중 임금근로자 비중이 계속 증가하였는데 남성보다 여성 임금근로자 비중이 더 빠른 속도로 증가
 - 1989년 1월 취업자 중 임금근로자 비중은 여성 59.0%, 남성 63.6%였는데 2018년 1월에 여성 77.9%, 남성 73.3%로, 여성의 임금근로자 비중이 남성 임금근로자 비중을 역전
 - ▶ 외환위기 이후 취업자의 불확실성 기피 경향으로 인해 임금근로자로 취업 확률이 높아진 것으로 보임
 - ▶ 2003년 이후 취업자 중 임금근로자 비중은 여성이 남성보다 높으며 격차도 1%p대에서 5%p 전후로 커짐
 - 2018년 1월 여성 임금근로자 규모는 859만 5천 명, 남성 임금근로자 규모는 1,112만 명
 - ▶ 1989년 1월과 비교하여 여성 임금근로자는 141.4%, 남성 임금근로자는 80.2% 증가
 - ▶ 임금근로자 중 여성 비중은 같은 기간에 36.6%에서 43.6%로 상승

[그림 3] 연령대별 임금근로자 규모

(단위 : 천 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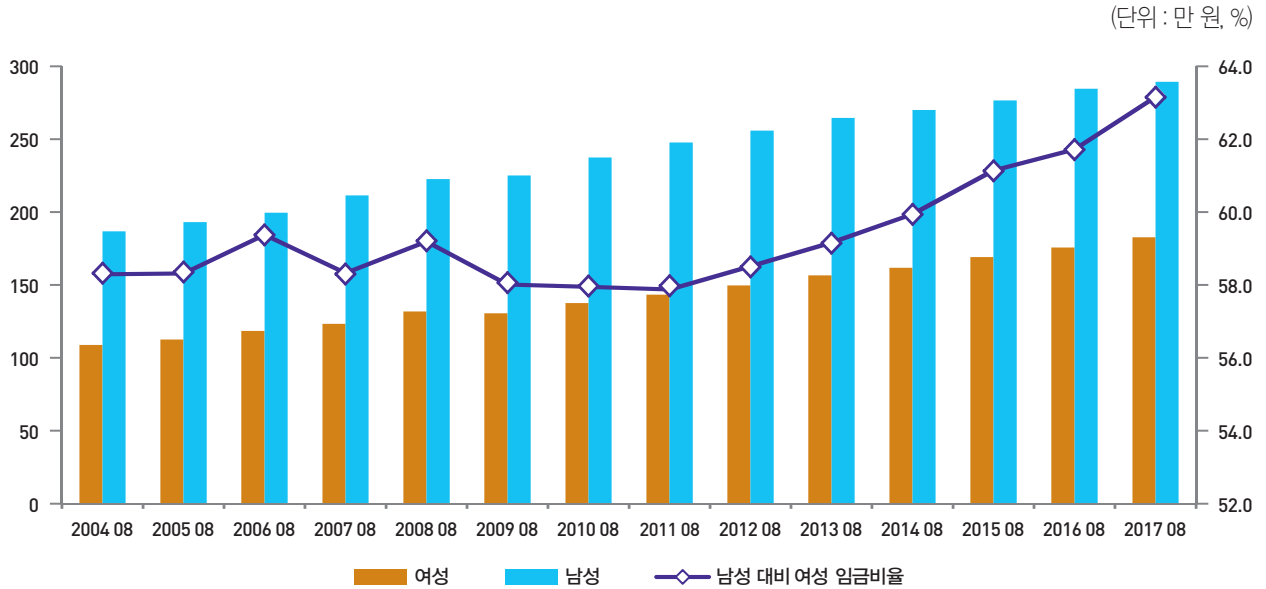


자료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각연월 원자료

- 중고령층 중심의 임금근로자 연령대 구성 변화 경향은 여성에게서 더 두드러짐
 - 2004년 1월과 비교하여 2018년 1월에 40세 미만 남성과 30세 미만 여성 임금근로자 규모 감소
 - 같은 기간에 임금근로자 중 50대 이상이 차지하는 비중은 남성은 16.7%에서 31.6%로 14.9%p 상승하고 여성은 15.2%에서 31.5%로 16.3%p 상승
 - ▶ 2018년 1월 남성 임금근로자의 연령대별 비중은 10대부터 60세 이상까지 순서대로 0.9%, 14.9%, 26.6%, 26.0%, 21.5%, 10.1%
 - ▶ 여성 임금근로자의 연령대별 비중은 순서대로 1.4%, 20.9%, 21.5%, 24.7%, 21.2%, 10.2%로,
 - 여성 임금근로자의 연령대 구성은 과거 20대 중심이었으나, 20대의 비중이 감소하고 30대의 비중이 높아져서 30대까지 비중이 감소한 남성과 연령대 구성이 유사해지고 있음
 - 출산과 육아로 인한 여성의 경력단절 경향이 다소 완화된 결과로 해석할 수 있음
 - ▶ 2004년 1월에는 20대와 30대 여성의 고용률은 각각 58.1%와 51.7%였으나, 2018년 1월에는 각각 58.3%와 60.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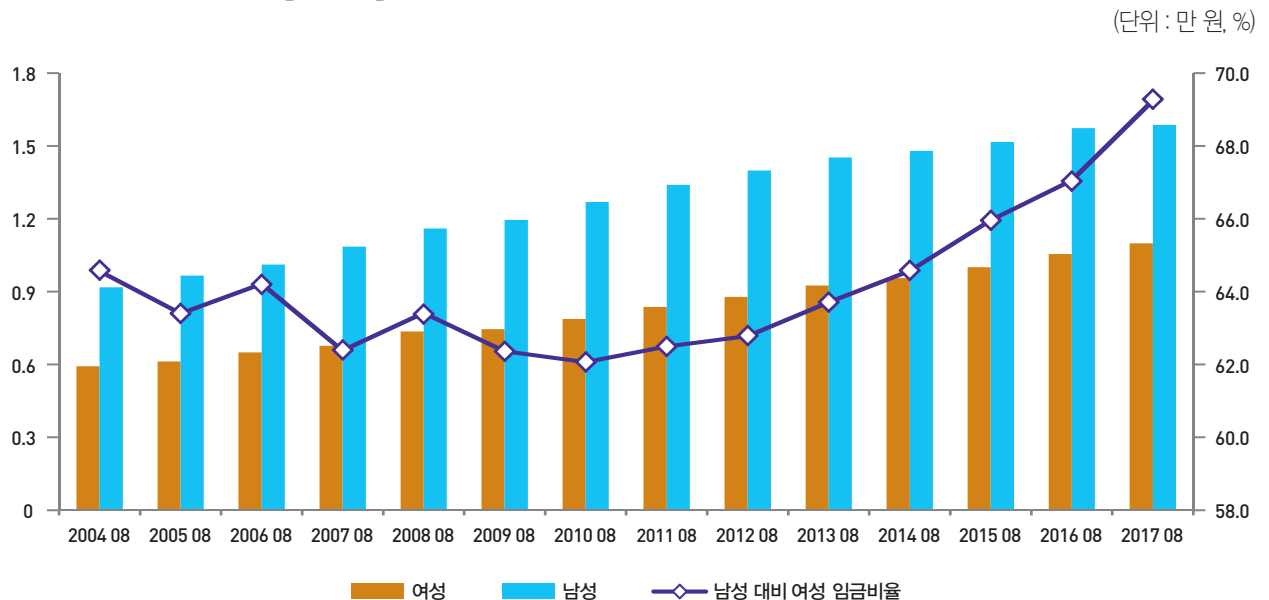
II. 여성과 남성의 임금격차¹⁾

[그림 4] 임금근로자 성별 평균 월급여와 임금비율



자료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근로형태별 부가조사 각연도 8월 원자료

[그림 5] 임금근로자 성별 평균 시간당 임금과 임금비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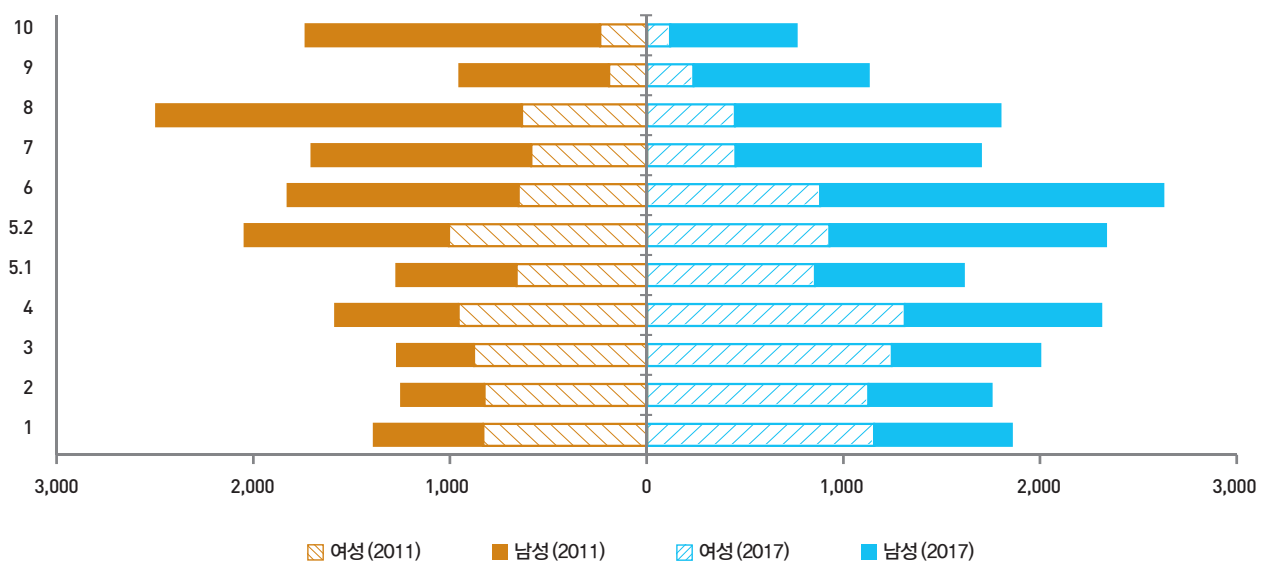
자료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근로형태별 부가조사 각연도 8월 원자료

1) 통계청의 경제활동인구조사 8월 근로형태별 부가조사 원자료를 활용하는 이하의 분석 결과는 2015년 인구총조사 결과 기반의 추계인구 변경을 반영하여 추후 발표되는 자료와 상이할 수 있음

- 여성 임금근로자의 상대 임금 수준은 2011년 이후 계속 상승
 - 취업자 규모와 경제활동 참가율 측면에서 여성 노동시장은 양적으로 확대되었으며, 취업자 중에서도 중고령층을 중심으로 임금근로자 증대
 - 2004년과 비교하여 2017년에 남성 임금근로자의 평균 월급여가 54.9% 상승하는 동안 여성 임금근로자의 평균 월급여는 67.8% 상승
 - ▶ 평균 시간당 임금을 기준으로 남성 임금근로자의 임금 상승률은 72.9%, 여성 임금근로자의 임금 상승률은 85.5%
 - ▶ 2004년부터 주40시간제 실시로 근로시간이 단축되었으므로 월급여보다 시간당 임금이 더 빠르게 증가
 - 성별 임금격차를 남성 대비 여성 임금근로자의 임금비율로 살펴보면, 2011년까지 심화되는 경향을 보이다 2011년부터 줄어 들고 있음
 - ▶ 평균 월급여 비율은 2011년 8월 57.9%에서 2017년 8월 63.2%로 증가하고 평균 시간당 임금 비율은 같은 기간 62.5%에서 69.3%로 상승
 - 연속적이지는 않지만 여성과 남성 임금근로자의 임금 격차가 완화되고 있음

[그림 6] 임금 등위선별 임금근로자 분포

(단위: 천 명)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근로형태별 부가조사 각연도 8월 원자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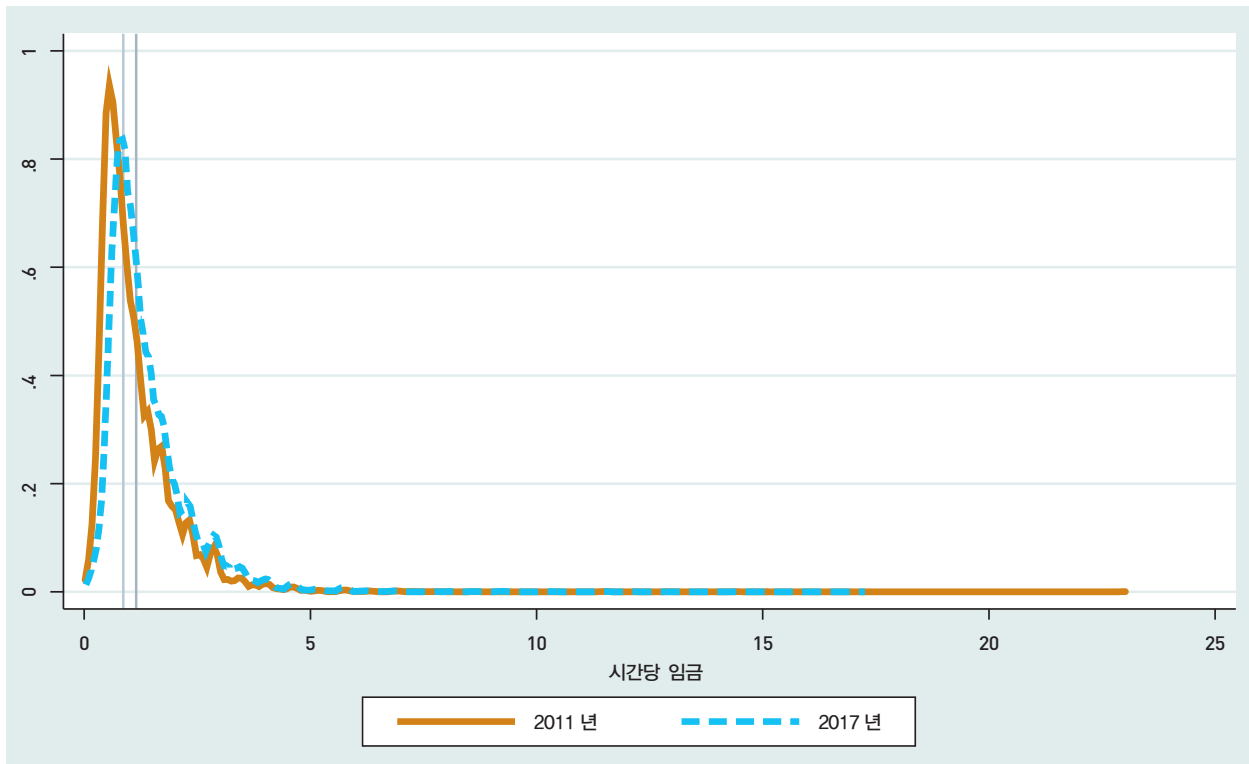
주: 임금 등위선은 순서대로 각 연도별 최저임금의 0.9배 미만(1), 0.9-1.1(2), 1.1-1.3(3), 1.3-1.5(4), 1.5-1.7(5.1), 1.7-2.0(5.2), 2.0-2.5(6), 2.5-3.0(7), 3.0-4.0(8), 4.0-5.0(9), 5.0배 이상(10)

- 여성의 임금 수준이 급격히 향상된 것은 아니며 여성과 남성의 임금 격차 감소에 남성 임금근로자의 임금 분포 변화가 기여
 - [그림 6]은 각 연도별 최저임금 수준을 기준으로 한 임금의 상대 위치를 임금 등위선으로 정의하고 각 등위선에 분포하는 임금근로자의 수를 나타낸 것임
 - 2011년 8월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한 임금 등위선은 임금근로자의 14.2%가 분포하는 8등위선이었으나 2017년 8월에는 13.2%가 분포하는 6등위선
 - 임금 등위선 위치의 하향 분포 원인은 크게 두 가지로 해석 가능
 - ▶ 하나는 최저임금 인상 속도에 비해 전체 임금근로자 임금 수준이 느리게 인상된 것인데, 노동시장의 저임금화 경향²⁾에 비롯했을 가능성
 - ▶ 다른 하나는 최저임금이 불평등 완화에 효과적인 수준으로 인상되었을 가능성
 - ▶ 두 가지 요인이 모두 작용하였을 수 있으며, [그림 7]에서 보듯이 결과적으로 임금압착(wage compression)³⁾이 일어났음
 - 임금근로자층이 두터워진 구간은 남성은 주로 5.2-6등위선, 여성은 1-6등위선으로 여성 임금근로자의 하층부 분포가 넓어진 것과 달리 남성 임금근로자는 상층부가 줄고 중간층이 확대
 - ▶ 9등위선 이상 고임금 임금근로자의 비중은 남성 중에서는 22.5%에서 13.8%로 크게 줄고 여성 임금근로자 중에서는 여성 중에서는 5.8%에서 4.1%로 약간 감소
 - 여성과 남성의 임금 격차 완화는 남성의 임금 분포 변화에서 많은 부분 기인한 것으로 보임
 - ▶ 최저임금의 영향을 밀접하게 받는 4등위선 이하 여성의 비중은 46.8%에서 55.2%로 증가

2) 임금분포가 저임금 구간으로 쏠리는 경향을 의미하며, 임금근로자 전반의 임금 지체보다는 저임금 일자리 등 저임금 부문 확대에서 비롯함. 저임금화 경향은 임금 양극화 경향과 함께 나타날 수도 있음

3) 임금분포상 저분위와 고분위 간 임금격차가 감소하여 전체 임금 구간이 좁아짐을 의미함

[그림 7] 임금근로자 임금 분포(커널 밀도 함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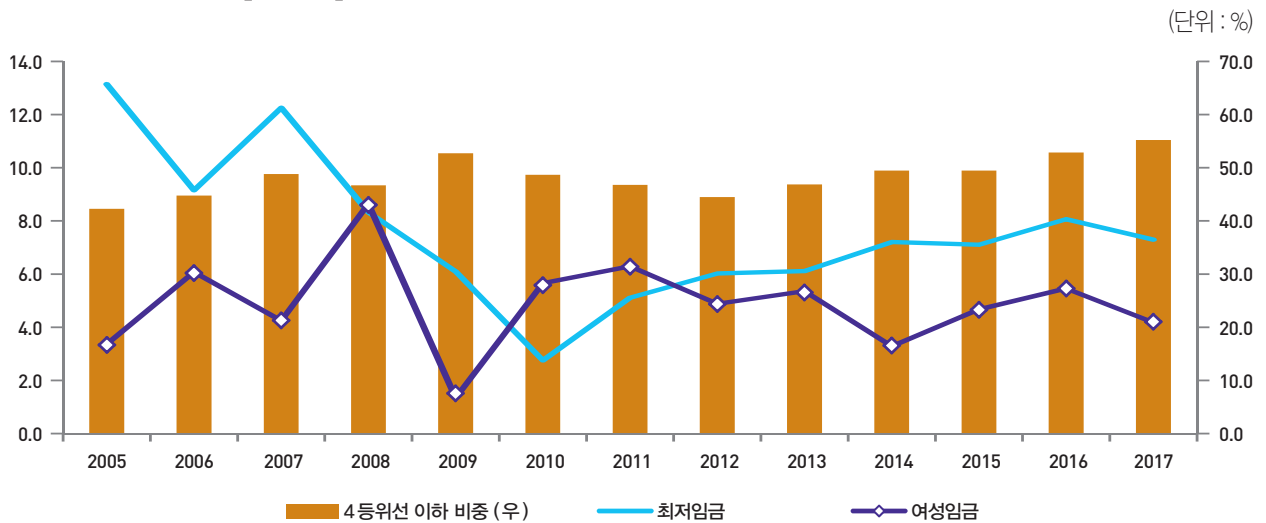
자료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근로형태별 부가조사 각연도 8월 원자료

주 : 수직선은 왼쪽부터 2011년과 2017년의 중위임금 수준

Ⅲ. 여성 임금근로자의 임금

- 전체 여성 임금근로자의 임금 상승률은 최저임금 인상률을 하회
 - 금융위기였던 2008년과 2010, 2011년을 제외하면 여성 임금근로자의 시간당 임금 인상률보다 최저임금 인상률이 높았음
 - ▶ 2011년 이후에는 여성의 임금 인상률이 남성의 임금 인상률을 상회
 - 최저임금의 1.5배 미만 구간인 4등위선 이하 여성 임금근로자 비중은 추세적으로 증가
 - ▶ 2004년에 33.2%, 2011년에 46.8%에서 2017년에는 55.2%로 증가
 - 여성 임금근로자의 임금에 대한 최저임금의 영향 범위가 상당히 넓어졌음

[그림 8] 임금근로자 시간당 임금 인상률과 4등위선 이하 비중



자료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근로형태별 부가조사 각연도 8월 원자료

- 여성 임금근로자의 종사상 지위 중 상용직은 늘고 임시직과 일용직의 비중은 감소하였으나 상대적으로 임금 수준이 높은 상용직 중 4등위선 이하 비중 증가
 - 2017년 8월 여성 임금근로자 중 상용직의 비중은 59.0% 이상으로 2011년보다 9%p 가까이 높아지고 임시직과 일용직 비중은 감소
 - 평균 시간당 임금 수준은 계속 상용직, 임시직, 일용직 순서인데 종사상 지위에 따른 상대 격차는 감소
 - ▶ 2011년 8월 종사상 지위에 따른 여성 임금근로자의 평균 시간당 임금 수준은 상용직 10천 원, 임시직 69천 원, 일용직 45천 원
 - ▶ 2017년 8월에는 상용직 13천 원, 9천 원, 7천 원으로 상대 격차 감소
 - 2011년 8월과 2017년 8월 사이 여성 임금근로자 중 4등위선 이하 비중은 상용직은 24.5%에서 38.2%, 임시직은 65.3%에서 78.1%, 일용직은 84.9%에서 89.6%로 변화
 - 여성 임금근로자의 상용직 비중은 늘었으나 상용직의 상대 임금 수준 저하
- 가장 많은 여성 임금근로자가 분포하는 산업은 2011년 제조업,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순서에서 2017년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제조업 순서로 바뀌었음
 - 제조업에 종사하는 여성 임금근로자가 20.5% 증가하는 동안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은 25.3% 증가
 - 여성의 일자리는 특정 산업에 집중 분포하는 경향이 있는데 두 산업 외에도 도매 및 소매업, 교육 서비스업, 숙박 및 음식점업 등

〈표 1〉 산업별 여성 임금근로자 분포

	분포(%)		2017년 등위선 분포(천 명)
	2011년	2017년	
A 농업, 임업 및 어업	1.33	0.77	
B 광업	0.00	0.06	
C 제조업	14.31	13.59	
D 전기, 가스, 증기 및 수도사업	0.16	0.17	
E 하수·폐기물 처리, 원료재생 및 환경복원	0.15	0.16	
F 건설업	1.77	1.66	
G 도매 및 소매업	13.13	12.74	
H 운수업	1.37	1.4	
I 숙박 및 음식점업	10.34	10.6	
J 출판, 영상, 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	2.50	2.47	
K 금융 및 보험업	5.61	4.62	
L 부동산업 및 임대업	1.66	1.86	
M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3.46	3.64	
N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 서비스업	6.49	6.25	
O 공공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 행정	4.72	4.72	
P 교육 서비스업	11.99	11.66	
Q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13.76	17.7	
R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1.53	1.49	
S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	3.75	3.84	
T 가구내 고용활동 및 달리 분류되지 않은 자가소비 생산활동	1.93	0.59	
U 국제 및 외국기관	0.03	0.02	
합계	100	100	0 400 800 1,200 1,6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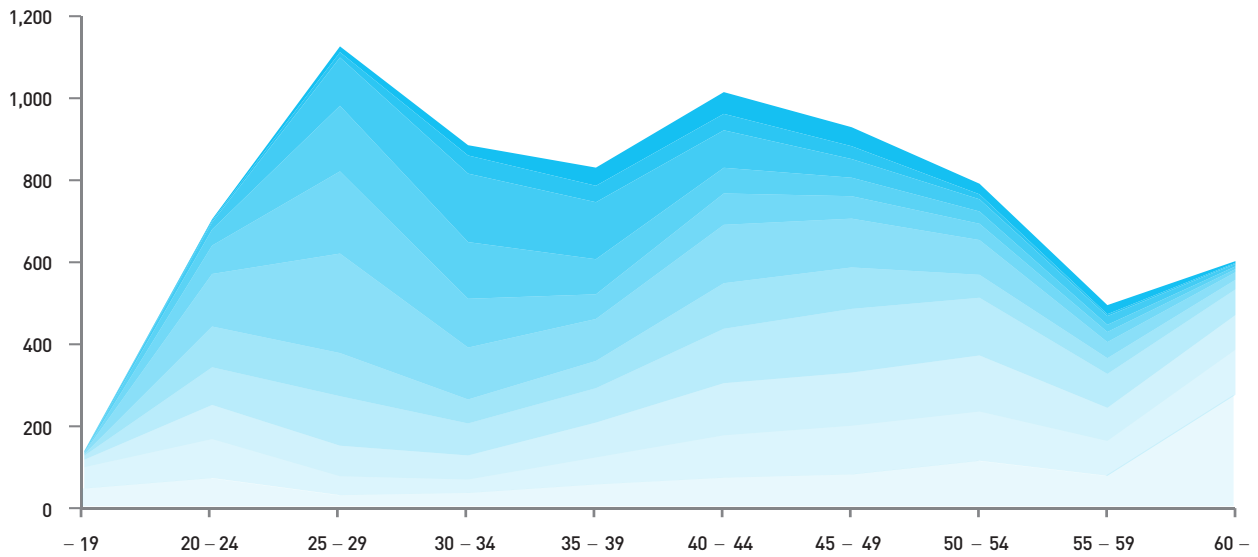
자료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근로형태별 부가조사 각연도 8월 원자료

주 : 등위선 그래프는 1등위선에서 10등위선으로 갈수록 짙은 색으로 표시

- 여성 임금근로자가 많이 분포하는 산업에서 4등위선 이하의 비중은 높은 편
 - ▶ 2017년 기준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은 54.9%, 제조업은 55.5%, 도매 및 소매업 67.4%, 숙박 및 음식점업 87.0%
 - ▶ 교육 서비스업은 4등위선 이하 비중이 30.5%로 상대적으로 낮음
 - ▶ 교육 서비스업에 종사하는 여성 임금근로자는 단 9.8% 증가하였는데, 전체 여성 임금근로자 증가율은 17.5%
- 최저임금의 영향을 많이 받는 산업에 여성 임금근로자가 집중 분포
- 중고령층 중심의 임금근로자 증대가 여성 임금근로자 중 최저임금 영향권 확대의 주요한 요인으로 작용
 - 2011년과 2017년 여성 임금근로자의 연령별 임금 등위선 분포를 나타낸 [그림 10]과 [그림 11]에서 두드러지는 점은 중고령층 임금근로자 규모 증대
 - ▶ 중고령층은 특정 산업에 집중 분포하는 경향이 저연령층에 비해 심하므로 중고령층 중심의 임금근로자 증대는 업종별 집중을 강화하였을 가능성이 있음
 - 20대를 제외하면 연령대별 4등위선 이하의 비중의 증가폭은 크지 않음
 - ▶ 20대 여성 임금근로자의 4등위선 이하 비중은 2011년 33.4%에서 2017년 50.5%로 매우 큰 폭으로 상승
 - ▶ 50대 이상 여성 임금근로자 중에서는 72.5%에서 74.6%로 소폭 상승
 - 20대 청년 여성의 임금의 상대 위치 저하와 더불어 저임금 비중이 높은 중고령층 규모가 크게 증가한 점이 여성 노동시장의 주요한 특징이라고 할 수 있음
 - 결과적으로 4등위선 이하의 여성 임금근로자는 절대적, 상대적으로 모두 증가

[그림 10] 2011년 여성 임금근로자 연령별 등위선 분포

(단위: 천 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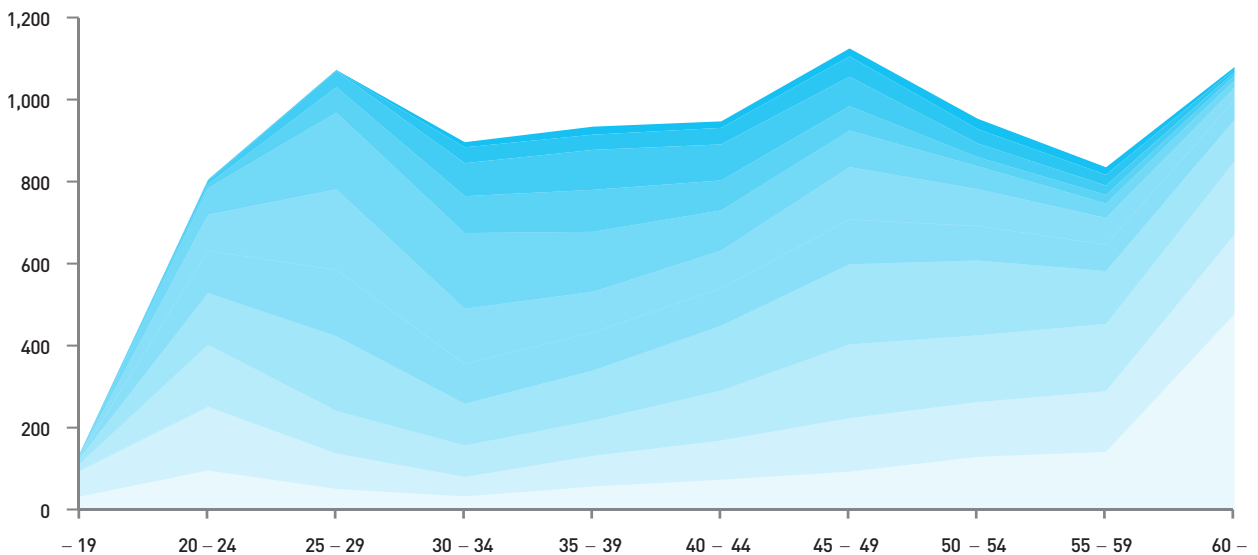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근로형태별 부가조사 8월 원자료

주: 등위선 그래프는 1등위선에서 10등위선으로 갈수록 짙은 색으로 표시

[그림 11] 2017년 여성 임금근로자 연령별 등위선 분포

(단위: 천 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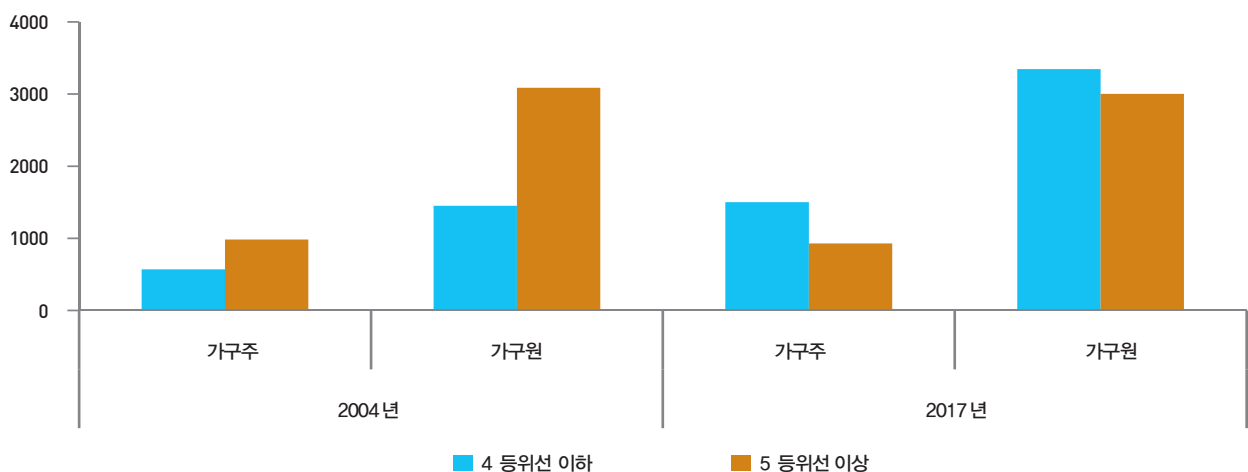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근로형태별 부가조사 8월 원자료

주: 등위선 그래프는 1등위선에서 10등위선으로 갈수록 짙은 색으로 표시

- 여성 중 최저임금의 영향을 받는 임금근로자 비중이 높으며 이전보다 더 높아지고 있다는 점에서 여성 노동에 대한 최저임금 정책의 중요성이 크다고 할 수 있음
 - 최저임금은 여성 임금근로자 다수에게 영향을 끼치므로, 여성 임금근로자의 생활과 밀접한 관계를 지님
 - 최저임금의 영향을 받는 여성 임금근로자 중에는 가구의 생계를 책임지는 가구주도 적지 않음
 - 외환위기 이후 논의된 신빈곤 현상 중 ‘여성빈곤’의 원인으로 주로 언급된 세 가지는 여성가구주 증가, 서비스업 중심의 산업구조 변화, 노동유연화 추구로 인한 경제구조 변화
 - ▶ 한국보건사회연구소의 2016년 빈곤통계연보에 따르면, 가처분소득 기준 중위 50% 미만 상대적 빈곤율은 2006년 13.4%에서 2015년 12.8%로 감소하였으나, 여성가구주 가구의 상대적 빈곤율은 28.7%에서 31.3%로 증가
 - 여성 임금근로자 중 가구주의 비중 증대는 여성가구주 가구 빈곤의 원인이자 결과로도 작용할 것임
 - ▶ 여성 임금근로자 중 가구주의 비중이 2004년 25.5%에서 2017년 27.7%로 증가
 - ▶ 가구주인 여성 임금근로자가 4등위선 이하일 가능성은 61.8%로 가구주가 아닌 여성 임금근로자(52.7%)보다 더 높음
 - ▶ 4등위선 이하 여성 임금근로자의 가구주 비중은 31.0%, 5등위선 이상은 23.6%

[그림 12] 여성 임금근로자의 가구주 분포

(단위: 천 명)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근로형태별 부가조사 각연도 8월 원자료

IV. 요약 및 합의

- 여성 노동시장은 양적으로 크게 확대되었으며, 취업자의 절대적 규모뿐만 아니라 경제활동 참가율도 증가하였음
- 여성 취업자는 자영업자 등 비임금근로자보다 임금근로자로 노동시장에 참가하는 경향이 심화되었음
- 중고령층을 중심으로 여성 임금근로자가 크게 늘었음
- 여성 임금근로자의 남성 임금근로자에 대한 평균적인 상대 보상 수준은 2011년 이후로 계속 높아지고 있는데, 즉 격차가 감소하고 있음
- 성별 임금격차 완화에 임금압착을 특징으로 하는 남성 임금 분포 변화가 기여
- 결과적으로 최저임금 영향권의 여성 비중은 여전히 높고 더 높아지고 있음
- 중고령층 중심의 여성 임금근로자 증대가 주된 이유이며, 특정 산업으로 여성이 집중되는 이른바 ‘성별 직종 분리’ 현상이 배경 요인으로 작용하였음
 - ▶ 중고령층 여성 임금근로자가 최저임금 영향권에 놓일 확률은 대단히 높음
- 중고령층 중심의 여성 임금근로자 구성 변화는 ‘여성빈곤’의 결과인 동시에 원인이 될 수 있음
- 최저임금은 좁게는 여성빈곤 문제, 넓게는 여성 노동시장의 상대적, 절대적 조건 결정에 있어 핵심 변수임
- 최저임금의 인상이 폭넓게 정의할 때 중요한 ‘여성정책’의 하나라는 점을 인식할 필요가 있음

이달의 통계포커스

여성 초단시간 근로자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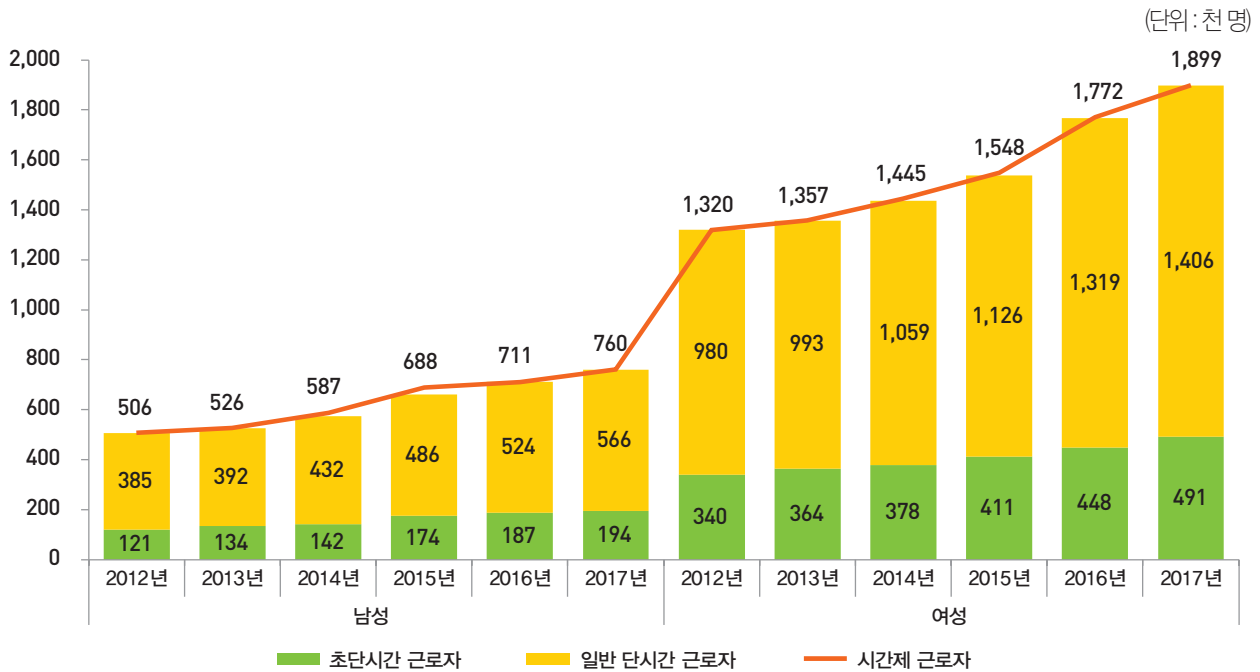


연보리*

- 최근 유럽과 미국에서 주당 15시간 미만으로 실근로시간이 매우 짧거나 최소근로시간 규정이 없는 시간제 근로자 문제가 대두됨
- 시간제 근로자는 경제활동인구조사 근로형태별 부가조사 응답시 시간제 근로 응답을 기준으로, 일반 단시간 근로자는 임금근로자 가운데 1주일에 15시간 이상 36시간 미만 근로한 자, 초단시간 근로자는 임금근로자 가운데 1주일에 15시간 미만 근로한 자로 정의함
 - 1주일에 15시간 미만 일한 초단시간 근로자 중 남성은 최근 5년간 7만 3천 명 증가하여 2017년 19만 4천 명을 기록하였고, 여성 초단시간 근로자는 15만 1천 명 증가한 49만 1천 명
 - 1주일에 15시간 이상 36시간 미만 일한 남성 일반 단시간 근로자는 2012~2017년 18만 1천 명 증가했으며, 여성 일반 단시간 근로자는 동기간 42만 6천 명 증가
 - 여성 초단시간 근로자는 2012년 34만 명에서 연평균 7.6%씩 증가하여 2017년 49만 1천 명

* 한국고용정보원 e현장행정지원팀 연구원 (seethekite@keis.or.kr)

[그림] 최근 5년간 성별 시간제 근로자 추이



주 : 2015년 인구총조사 결과를 기반으로 추계인구가 변경(2018.02.14. 공표)되어 통계청의 경제활동인구조사 근로형태별 부가조사 8월 원자료를 활용하는 이하의 분석결과와 상이할 수 있음

자료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근로형태별 부가조사 각연도 8월 원자료

〈표 1〉 여성 일반 단시간 근로자 및 여성 초단시간 근로자의 근로조건

(단위:천 명 % 만 원)

		여성 일반 단시간 근로자						여성 초단시간 근로자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합계		980	993	1,059	1,126	1,319	1,406	340	364	378	411	448	491
국민연금	미가입	719	696	703	742	828	868	314	333	347	376	402	444
	국민연금	185	210	250	249	325	373	1	1	3	2	4	7
	지역가입자	76	87	105	135	166	165	24	30	28	33	41	39
	미가입률	73.4	70.1	66.4	65.9	62.8	61.7	92.5	91.5	91.9	91.5	89.9	90.6
고용보험	미가입	759	733	751	796	903	927	334	360	367	401	435	478
	가입	215	253	302	328	407	467	4	3	11	9	12	13
	미가입률	77.9	74.3	71.3	70.8	69.0	66.5	98.9	99.2	97.0	97.7	97.4	97.4
퇴직급여	없음	825	802	835	866	974	1,007	336	361	375	402	438	480
	있음	155	191	224	260	345	399	4	3	3	9	10	10
	미지원을	84.2	80.8	78.9	76.9	73.8	71.6	98.9	99.3	99.3	97.7	97.8	97.9
최근 3개월간 평균 임금		68	72	74	79	85	93	31	36	35	32	36	34
시간당 임금		0.6	0.6	0.7	0.7	0.8	0.8	0.8	1.0	0.9	0.9	1.0	0.9

주 : 고용보험 적용제외 대상자는 분석에서 제외하여 총합계와 일치하지 않을 수 있음

자료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근로형태별 부가조사 각연도 8월 원자료

- <표 1>의 국민연금 미가입률은 일반 단시간 근로자나 초단시간 근로자 모두 해당 기간 높은 편이지만, 특히 초단시간 근로자의 미가입 비율은 90%를 상회하며 일반 단시간 근로자에 비해 매우 높음
 - 국민연금 직장가입자 가입률을 비교했을 때, 2017년 기준 일반 단시간 근로자 가입률은 22.5%인데 반해 초단시간 근로자는 1.3%에 불과
 - 고용보험 미가입 비율 또한 2017년 기준 여성 일반 단시간 근로자는 66.5%로 다소 낮는데 비해 여성 초단시간 근로자는 97.4%에 달함
 - 퇴직급여 또한 초단시간 근로자는 거의 받지 못한다고 볼 수 있음
 - 시간당 임금은 여성 초단시간 근로자가 여성 일반 단시간 근로자에 비해 높은 편으로 나타났으나 최근 3개월간 평균 임금이 낮은 것은 초단시간 근로에 의한 것으로 보임
- 초단시간 근로자의 근로조건 중 임금 부분이 가장 열악한 상황(조돈문 외, 2017)¹⁾
 - 여성 일반 단시간 근로자의 최근 3개월간 평균 임금은 2012년~2017년 사이 꾸준히 증가하였음에 반해 여성 초단시간 근로자의 평균 임금은 30만 원 내에서 정체
 - 매우 짧은 시간 근로하여 일정한 노동량을 보장하지 못해 저임금 문제가 발생
 - 짧은 시간 근로하기 때문에 일의 동기가 낮고 근로자 개인의 역량 형성 및 경력 개발이 늦어진다는 문제점이 발생
 - 또한 실업보험의 자격이 안 되어 사회보험의 적용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이중적으로 소득이 불안정함

1) 조돈문, 정흥준, 김영미, 남우근, 2017. 『노동권 사각지대 초단시간 근로자』, 매일노동뉴스, p. 22~66

〈표 2〉 여성 초단시간 근로자의 인적 특성 비교(2012년, 2017년)

(단위:천명, %)

		2012년		2017년		2012년 기준 증감
			(비중)		(비중)	
합계		340	(100.0)	491	(100.0)	151
연령	청년층	84	(24.8)	138	(28.2)	54
	중년층	97	(28.6)	88	(17.8)	-10
	장년층	159	(46.7)	265	(53.9)	106
학력	중졸 이하	152	(44.7)	224	(45.7)	72
	고졸	127	(37.3)	175	(35.8)	49
	초대졸	12	(3.5)	28	(5.6)	16
	대졸 이상	49	(14.5)	63	(12.9)	14
혼인 상태	미혼	89	(26.1)	139	(28.3)	50
	유배우	156	(45.9)	192	(39.2)	36
	사별/이혼	95	(28.0)	159	(32.4)	6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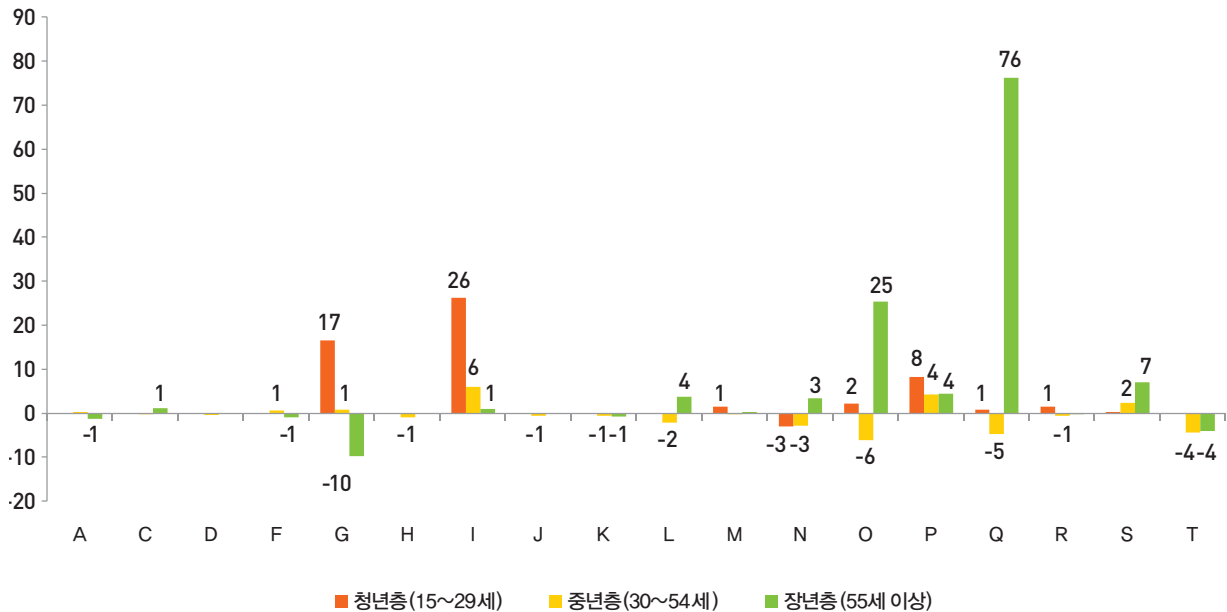
자료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근로형태별 부가조사 각연도 8월 원자료

■ 여성 초단시간 근로자는 주로 장년층, 저학력층을 중심으로 증가

- 연령별로 여성 초단시간 근로자를 나눠보았을 때, 2017년 기준 장년층 비중이 절반을 넘어섬
- 학력별로는 2012년과 2017년의 비중은 크게 다르지 않음
- 혼인상태를 살펴보았을 때, 유배우자인 여성의 비중은 감소하였고 미혼이거나 사별/이혼 등으로 배우자가 없는 여성의 비중이 증가

[그림 2] 여성 초단시간 근로자의 연령층별 산업 대분류 증감(2012년, 2017년)

(단위:천 명)



주 : A. 농업, 임업 및 어업, C. 제조업, D. 전기, 가스, 증기 및 수도사업, F. 건설업, G. 도매 및 소매업, H. 운수업, I. 숙박 및 음식점업, J. 출판, 영상, 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 K. 금융 및 보험업, L. 부동산업 및 임대업, M.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N.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 서비스업, O. 공공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 행정, P. 교육 서비스업, Q.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R.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S.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 T. 가구나 고용활동 및 달리 분류되지 않은 자가소비 생산활동, (한국표준산업분류 9차 기준)

자료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근로형태별 부가조사 각연도 8월 원자료

■ 산업별로 보면 지난 5년간 여성 초단시간 근로자는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7만 2천 명), 숙박 및 음식점업(+3만 3천 명), 공공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 행정 (+2만 1천 명)에서 주로 증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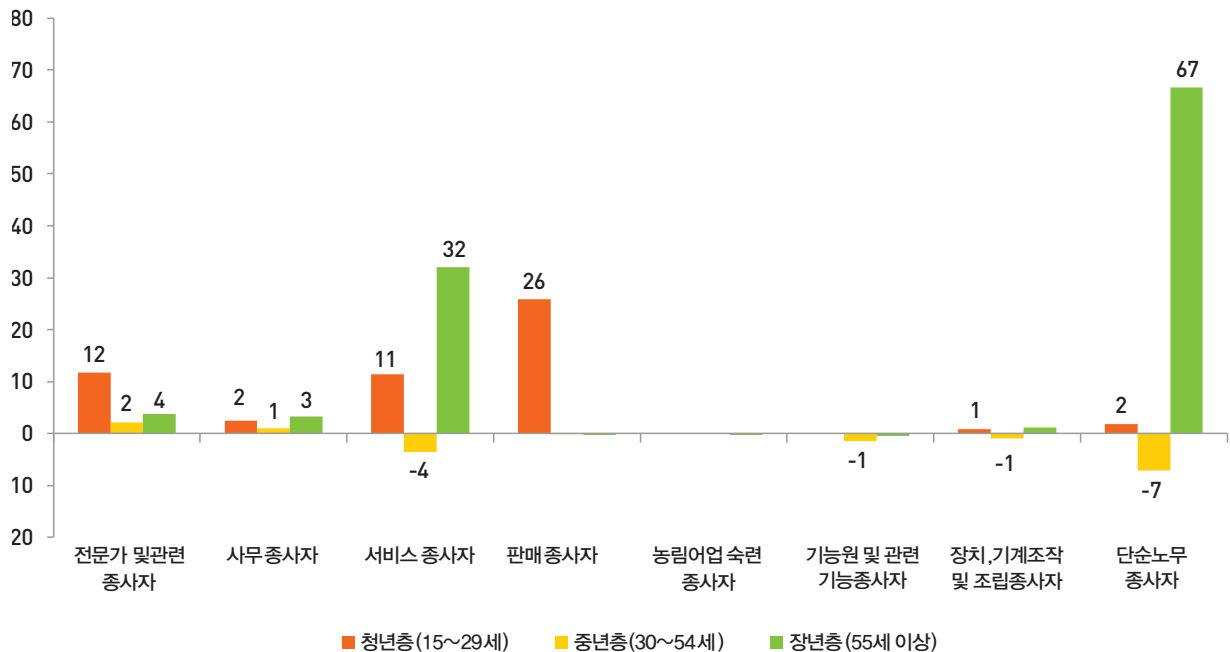
- 청년층에서는 지난 5년간 초단시간 근로자가 5만 4천 명 증가하였는데, 주로 숙박 및 음식점업(+2만 6천 명), 도매 및 소매업(+1만 6천 명)에서 증가

- 중년층 여성 초단시간 근로자는 2012년 대비 취업자 수가 감소(-1만 명)하였고, 산업별로 소폭 변화하는데 그침

- 장년층 여성 초단시간 근로자는 지난 5년간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에서 7만 6천 명 증가하였는데, 이를 통해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의 초단시간 근로자 증가는 장년층 여성 중심임을 확인

[그림 3] 여성 초단시간 근로자의 연령층별 직업 대분류 증감(2012년, 2017년)

(단위: 천 명)



자료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근로형태별 부가조사 각연도 8월 원자료

- 2012~2017년 여성 초단시간 근로자는 기능원 및 관련 기능종사자를 제외하고 전 직업군에서 증가하였는데 주로 단순노무 종사자(+6만 1천 명), 판매 종사자(+4만 명)에서 증가함
 - 청년층에서는 판매종사자에서 주로 초단시간 근로자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2만 6천 명)
 - 중년층 여성 초단시간 근로자는 단순노무종사자에서 7천 명 감소
 - 장년층의 경우 주로 단순노무종사자(+6만 7천 명)와 서비스 종사자(+3만 2천 명)에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 단순노무종사자의 초단시간 근로자 증가는 장년층 여성이 중심이 되었음을 확인

고용동향
브리프

02

